

재현의 재현을 보는 시선: 중국인이 보는 북한식당과 ‘북한적인 것’*

김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의 해외 경제활동에 대한 유엔제재를 비롯한 국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코로나 사태를 거쳤지만, 1980년대부터 중국, 소련, 동유럽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에는 세계 주요 도시로 급속히 확장되었던 해외 북한식당은 비록 감소하기는 했지만 중국에서는 수십 곳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환기에도 여전히 북한 외화 획득의 중요한 창구로 작동하고 있는 중국 내 북한식당을 대상으로 북한의 재현 전략과 중국인 수용자의 시선, 그리고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북한식당은 북한 영토 외부에 위치한 초국적 소비공간으로서 북한체제 선전과 외화획득이라는 이중 목적을 수행한다. 그러나 소비공간이라는 특성상 공급자(북한)뿐만 아니라 수요자(중국인)의 시선과 취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다.

북한식당은 핵과 독재라는 기존 이미지와 대립되는 이미지를 재현하기 위해 젠더화 전략을 적극 활용한다. 그런데 여성 종업원의 서비스와 공연을 통해 친절하고 예술적인 북한의 이미지를 구축하면서도, 사진촬영 금지, 정치적 대화 금지 등의 대립적인 규칙을 병존시킨다. 이러한 ‘대립적 재현’은 북한식당의 태생적 모순이라 할 수 있다. 여성종업원들은 고위간부 출신의 엘리트로 선발되며, 예술가로 정체화되는 공연을 통해 ‘신비로움’이라는 상징자본을 생산한다. 이는 북한식당 이윤의 기반이 되는 폐쇄적 국가 북한에 대한 ‘호기심 자본(curiosity capital)’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다. 그러나 호기심 자본의 유지를 위해 중국인 수용자의 취향에 맞추어 재현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발생한다. 중국 대중가요, 전자기타, 재즈댄스 등 현지화된 공연 요소의 도입은 젠더 디스플레이를 강화하면서도 ‘북한적인 것’의 진정성을 위협하게 한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중국인 소유 식당의 증가, 남한국민 출입 차단의 어려움 등이 북한식당의 재현 전략에 지속적인 도전을 제기한다.

중국인 수용자의 북한식당 인식은 냉전기부터 형성된 북중관계의 역사적 맥락, 즉 중국(남성)-북한(여성)의 젠더화된 위계구조 속에서 작동한다. 이를 ‘젠더화된 오리엔탈리즘’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 북한식당을 통해 중국인들이 중국과 북한과의 경제적 위계를 인식하면서도 북한을 존중하고 신비화하는 양가적 태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북한식당, 북한적인 것, 재현, 젠더화, 북중관계, 호기심 자본, 젠더화된 오리엔탈리즘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24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임.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담지 못한 부분은 향후의 연구를 통해 보완할 것을 기약드립니다.

I. 들어가며: 해외 소비공간에서의 북한 재현

북한은 재현이 불가능에 가까운 연구대상이다. 정보와 교류가(남한에게는 더욱) 차단된 대상이기 때문이다. 많은 북한 연구들이 북한에 대한 ‘사실(fact)’들을 탈북자들의 구술을 통해 획득하지만, 구술에서 사실을 추출하는 것은 이미 구술자의 해석을 거친 사실들에 기반한다. 탈북자의 구술 외에도 우리는 북한의 재현을 관찰할 수 있다. 북한도 자체적으로 자신에 관한 사실들을 국가 내부와 외부에 재현(representation)하기 때문이다. 이를 선전(propaganda)으로 볼 수 있다 해도, 북한의 재현 전략 자체를 연구하는 것은 북한 이해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재현 방식이 다른 시기나 다른 장소에서 다르게 변형된다면, 그 자체가 북한의 ‘변화’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한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도 북한에 대한 사실과 정보는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측이 발신하는 재현을 어느 정도 검토하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재현이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북한 측의 ‘재현’과 재현을 보는 ‘시선’의 관계에 주목할 수 있다. 북한이 재현할 경우, 그 재현에 대해 외부자들도 나름의 시선을 갖고 재현물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 같은 외부자들의 시선에 영향을 받아 그에 따라 기존 재현의 양식을 조정하고 변형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연구 대상은 북한식당일 것이다. 북한식당은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소비의 자유’의 층위로 내려온 작은 북한이다.¹ 북한의 해외 경제활동에 대한 유엔제재를 비롯한 국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코로나 사태를 거쳤지만, 1980년대부터 중국, 소련, 동유럽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에는 세계 주요 도시로 급속히 확장되었던 북한식당은 2016년에 전 세계에 약 130개 정도로 정점을 이루었다가 2017년 이후 대북제재와 코로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정치적 상황 악화와 경영난이 겹치면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선양, 단둥, 창춘, 베이징, 상하이 등지에

¹ 헤이스팅스에 따르면 북한식당은 북한 무역 네트워크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북한 외부의 비북한 기업 및 소비자와 연결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준다(Hastings, 2016: 124).

여전히 수십 곳이 운영되고 있다(오중석, 2023).² 따라서 소비공간으로서의 북한식당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필요하며 의미가 있다.

북한영토 외부에 설치된 북한식당은 초국적이면서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북한 경험을 가능케 한다. 외화 획득이라는 경제적 목적과 북한 체제 선전이라는 정치적·이념적 목적, 이 두 가지는 북한 관광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견해이며 북한식당이 설치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³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북한식당의 ‘공급자’ 측면만 강조하는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식당이라는 북한 외부의 소비 공간에서는 북한인과 외국인(남한국민 포함) 간의 일상적인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소비 공간은 일정 수준에서는 정치적·이념적 공간을 침식할 수 있다. 이를테면 현재 남한인은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어쨌든 나중에 쫓겨나더라도 일단 식당 출입문으로 들어갈 수는 있다. 소비 공간에서 원천봉쇄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중국어나 연변어를 완벽히 구사한다면, 그는 북한식당에서 평양냉면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소비 공간의 일상성을 감안한다면, 평범한 중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인식을 파악하고, 북한식당이 재현하는 것들에 대한 수용자의 해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진다. 나아가 중국인들의 시선에 맞추어 북한측의 재현 전략이 변경된다는 점도 살펴볼 수 있다. 수용자가 공급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비 공간인 북한식당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고는 ‘북한적인 것’의 재현을 둘러싼 중국 내의 북한식당과 중국인들의 시선 교차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한다. 북한식당이 북한을 어떻게 재현하는지, 그것을 중국인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나아가 북한의 재현과 중국인 시선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핵심적인 주장은 북한적인 것을 외부의 초국적 공간에서 재현하는 북한식당은 수용자(중국인들)의 시선에 조용하여 자신의 재현 전략을 조정하는데, 그러면서 나름의

² 오중석, “해외의 북한식당”, 자유아시아방송(2023. 9. 1.).

³ 전경용, “해외 북한식당 이용? 김정은에 ‘달려 상납’하는 격”, 뉴데일리(2016. 2. 15),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6/02/15/2016021500044.html>(검색일: 2024. 7. 30.).

북한적인 것의 실체를 고수하려 하지만, 그 과정은 항시적인 리스크를 야기한다.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절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시각을 다루며, 기존 연구를 검토한 바탕 위에서 연구의 이론적 시각과 연구 대상과 방법을 제시한다. III절에서는 북한식당이 젠더적 재현과 금지 규칙을 병존시키는 대립적 재현 전략을 수행하면서도, 폐쇄 국가 북한의 금지와 신비로움을 토대로 한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지속시킴으로써 유지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IV절에서는 이러한 (젠더화로 대표되는) 소비자의 시선에 맞추는 조정과 적응 작업이 결국은 선전과 이윤을 포함한 북한적인 것을 재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V절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오랜 북중 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중국인들이 북한과 북한식당을 보는 시선에 젠더화된 오리엔탈리즘이 작용하고 있음을 제안한다. VI절은 논의를 정리하면서 중국 내 북한식당과 여타 지역의 북한식당의 차이에 대해 검토한다.

II. 연구의 배경과 시각

1. 기존 연구 검토

관광이나 음식을 통해 각 국가와 체제의 이미지를 선전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유력한 연구들이 있다. 조지프 나이(나이, 2004)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 이론으로 관광·음식을 통해 체제의 매력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문제를 다루었고, 크리슈나 기미레(Ghimire, 2001)는 권위주의 국가가 관광산업을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를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단선적인 선전 이론으로만 보기에는 북한식당이 소위 외화벌이를 위한 상업적 기관이기도 하므로, 정치상품화의 측면에서 보기도 한다. 래쉬와 루리(Lash·Lury, 2007)는

⁴ 북한식당은 북한이라는 재현물을 해외에서 다시 재현하므로 일종의 ‘재현의 재현’을 수행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문화적 대상 자체가 소비자들에 의해 재생산되거나 의미가 재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브랜드라는 가상(the virtual)이 오히려 실제(the reality)의 재현보다 더 강력한 상징적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북한적인 것의 실체나 본질보다는, 그것의 문화적 재현과 그러한 재현을 수용하고 변형하는 관광객의 해석과 시선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식당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해외든 국내든 매우 적다. 북한식당을 통한 북한 음식문화의 전파와 변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해외에 있지만, 음식문화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들로서 사회과학적 가치를 찾기는 어렵다(Flinck, 2022; Lim, 2020; Sonenshine et al., 2016). 음식수출이나 세계화의 영향 등으로 북한도 외부 국제정치경제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논의에 집중할 뿐, 북한 식당과 방문객들의 상호작용을 다루지는 않는다. 국내에서의 북한식당 연구도 많지는 않으며, 연구가 시작되는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하상우는 태국 북한식당을 현지조사하고 공연을 중심으로 북한식당이 현지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주었다(하상우, 2019). 본 연구의 주제인 북한식당의 재현과도 관련된, 한국인(남한인)의 시선뿐만 아니라 동남아인의 시선까지 포괄하여 북한식당을 ‘젠더화된’ 초국적 공간으로 보는 연구도 등장했다(이지연, 2023; 2024). 실제 북한식당 업무 경력자를 인터뷰한 이 연구들은 ‘인종화’ 개념을 활용하여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대해 민족적 동질감과 민족 내 인종화를 동시에 가동시킴을 ‘내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로 지적하였다. 북한식당이 한반도 외부에서 분단의 탈영토화가 가능한, 열린 공간이 될 수 있음도 전망한다. 그러면서도 ‘이주의 여성화’라는 글로벌 이주노동 연구를 반영하여 북한 식당의 여성종업원에 초점을 맞춘다. 중국 내 북한식당 여성종업원을 일반적인 이주여성 패러다임으로 온전히 해석가능한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북한식당에 대한 중국인의 시선을 다루는 연구는 부재하다. 북한 무역 네트워크의 구성에 초점을 두어 마약(비합법적)과 식당(다소 합법적) 양자를 비교하는 한 연구는 북한식당이야말로 북한이라는 폐쇄경제의 창의성, 적응력, 유연성이 응축된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빠른 현금 확보, 해당 국가와의 협약 절차 불필요, 해당 국가에서의 사업이나 공작의 전초기지 등 여러 이점으로 북한식당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Hastings, 2016). 북한식당이 다양한 형태로(북

한 단독 또는 중국기업과의 합작) 설치·운영되고 있음도 보여주었다. 한편 중국인들이 북한식당을 어떠한 시선으로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식당 방문이 방문자가 북한 본토 관광을 결심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관광분야의 연구들이 간접적인 단서를 제공한다(Weaver·Tang, 2021).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의 일반적 시선에 대해서는 2017년에 단행본 연구가 나온 바 있어 선행 연구로 삼을 수 있다(박명규·백지운 편, 2017).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의 시선은 물론 같지 않다. ‘경로의존적 시각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고정불변하지 않고 시기에 따라 변동한다(박명규, 2017: 11). 특히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윤정은 중국인의 북한 관광을 다루면서 중국인이 북한을 보는 시선을 ‘신비의 나라’, ‘사회주의 노스텔지어’, ‘호기심’ 등으로 분석하였다(주윤정, 2017). 영국 사회학자 존 어리(John Urry)에 따르면, 관광객은 대체로 관광의 대상을 타자화하지만, 시선에 놓인 대상이 관광객과 관광객이 속한 사회의 ‘거울’로 작동하기도 한다(Urry, 2002). 만일 북한식당이 중국인 인식의 거울이 될 수 있다면, 중국인들의 북한식당 경험과 해석은 중국사회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반영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2. 연구 시각: 북중관계의 역사적 맥락과 젠더적 위계화의 시선

중국인들은 20세기 중반기 이후 북한과의 관계 경험을 통해 북한과 북한식당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북한식당이 북한 여성노동자의 이주노동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이주의 여성화(Piper, 2008) 관점으로만 북한식당을 설명하기는 불충분해 보인다. 이주의 여성화는 대부분의 국가 간 이주에 적용되는 지나치게 보편적인 관점이므로, 중국과 북한을 고찰할 경우에는 양자 간의 ‘특수성’도 해명해야 할 것이다.

특수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냉전 시기부터 진행된 북중관계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중국인의 북한에 대한 시선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핵심을 먼저 말하자면, 70여 년간의 북중관계에서 우리는 ‘북한의 여성화’라는 시선을 포착할 수 있다(김란, 2017). 대표적으로 냉전 시기 중국 영화들은 북한을 재현할 경우, 중국을 ‘남성’으로 북한을 ‘여성’으로 표상해왔다. 일례로, 1959년 중국 영화

〈우의(友誼)〉는 중국 지원군이 미군에게 폭행당하는 북한 여성을 구조한다. 남성이 여성을 돕는다는 것은 중국이 북한을 돕는다는 서사를 전달한다. 이처럼 북중관계를 젠더화하는 시선은 중국과 북한 간의 —비록 혈맹이지만— ‘위계’를 함의하고 재생산한다. 흥미로운 점은 〈우의〉에 남성 북한인민군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로 군인이 아닌 북한의 민간인 여성이 등장하되, 북한 여성의 섹슈얼한 특성은 최대한 생략된다. 개혁개방 이후의 영화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여성으로 표상하되, 북한을 어머니로 표상하는 작품들이 등장했다(김란, 2017: 129-133). 개혁개방 이후 북한에 대한 여성적 재현은 더욱 보수화된 형식으로 지속된다(한담, 2025: 4장). 따라서 북한식당을 분석할 때는 현재의 글로벌 자본주의의 이주의 여성화뿐 아니라, 북·중 관계의 역사에서 작동하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젠더적이며 위계적인 재현 양식이라는 특수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북한과 중국 간의 젠더화된 시선은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오리엔탈리즘 이론을 전개하면서, 서구의 시선이 동양을 여성적인 것으로 묘사했다고 말한 것에서 이론적 기반을 찾을 수 있다(사이드, 2015). 중국은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위계설정하에서 여성적 표상을 통해 신비로워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이를 우리는 ‘젠더화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일반적인 식민-피식민 관계도 아니고 중중우의(中朝友誼)라는 표현으로 수식되기도 하지만, 적어도 젠더적 위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뒤에서 보이도록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북한식당에서의 북한 재현과 중국인 시선 간의 미시적 작동 논리를 파악하기 위해, 고프만(Erving Goffman)의 연극론적 사회학 이론,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장과 자본 이론, 혹실드의 감정노동론의 일부 개념을 적용할 것이다. 이 같은 다양한 이론들을 이론가들 각각의 전체 이론 수준이 아닌, 여성종업원의 공연 및 서비스와 그것을 둘러싼 관객/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야기하는 재현양식을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분석 개념으로서 도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재현의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적인 것’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나라와 체제에 대한 실체론적 규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북한적인 것’이라는 표현을 채택한다. ‘미지(未知)’의 실체로 북

한을 언급하기 위함이다. 선동이라고 부르든, 재현이라고 부르든, 북한이라는 실체에 다가가는 것이 매우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야말로 실체보다 재현된 이미지가 압도적 영향력을 가진다.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가 말했던, 이라크전 자체보다 이라크전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물이 더 우위에 선다는 논리를 떠올리면 될 것이다(보드리야르, 2001: 12).⁵ 북한도 북한의 선전물과 북한에 대한 서방언론과 한국언론의 재현물이 우리의 인식을 압도적으로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재현물로서 북한식당이 북한을 어떻게 재현하는가도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식당은 북한이라는 재현물을 해외에서 다시 재현하는 일종의 ‘재현의 재현’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국적 공간인 북한식당에서 구성되는 북한적인 것은 어떤 단일한 실체로 단정 지을 수 없는 복수의 ‘북한적인 것들’이다(이지연, 2023: 165).

세계 여러 나라 중 북한식당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중국이며, 가장 먼저 설치된 곳도 중국이다.⁶ 따라서 본 연구는 이주노동의 여성화란 관점을 수용하지만, 중국의 특수성을 파악하면서 북한식당을 분석할 것이다.

3. 연구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북한식당의 재현 양상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한다. 북한식당의 젠더적 재현이 양국 간의 위계를 재생산하면서도, 수용자인 중국의 시선에 의해 그 재현 전략이 조정·적용되는 과정을 파악한다. 또한 이로 인해 북한식당이 ‘북한적인 것’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동영상플랫폼 빌리빌리(Bilibili)를 대상으로 북한식당의 재현과 해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업로드된 북한식

⁵ 이처럼 재현물이 재현의 대상보다 우위에 서면서 실체와 그 재현이 뒤집히는 현상을 보드리야르는 ‘시물라시옹(simulation)’이라고 불렀다(보드리야르, 2001)

⁶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매체이기는 하지만 Voice of America(VO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북한은 베이징, 상하이, 다롄, 단둥, 선양, 훈춘, 투먼 등 중국 주요 도시 10여 곳에서 수십 개의 식당을 운영 중이며 지역별로는 선양 17개, 단둥 13개, 창춘 8개, 베이징 7개, 상하이에 7개가 운영되고 있다. 함지하, 2024, “중국 전역서 북한식당 ‘수십 개’ 확인 …선양 17개·베이징 7개,” 3. 12., VOA, <https://www.voakorea.com/a/7523379.html>(검색일: 2024. 6. 20.).

표 1 북한식당 방문을 주제로 한 동영상 텍스트

크리에이터 (구독자수)	업로드일	제목	조회수
飞向月球的田二哈 (1.8만)	2021. 6. 10.	穿越到平壤吃晚饭, 听朝鲜姐姐唱神曲! (평양으로 시간여행해서 저녁식사하고, 북한 언니가 명곡 부르는 걸 듣기!)	2664
陈无忧在囧途 (1.5만)	2020. 1. 13.	朝鲜? 上海尽然开着两家朝鲜国营餐厅, 清一色朝鲜小姐 姐服务员(북한이라고? 상하이에 북한 국영식당이 두 군데 나 있는데, 서빙하는 직원들이 모두 북한 여성들임)	7446
虎先生tiger (2.9만)	2023. 5. 28.	朝鲜美女, 在中国当服务员! 实地探访吉林的餐厅, 里面 全是朝鲜美女服务员(북한 미녀들이 중국에서 서빙을 하 고 있다! 길림성 레스토랑 현장 취재, 안에는 온통 북한 미 녀 서빙직원들뿐!)	54.1만
雷斯林raist (22.4만)	2021. 8. 13.	开在上海的朝鲜国营餐厅, 服务员全是平壤美女大学生(상 하이에 있는 북한 국영 레스토랑, 서빙직원들이 모두 평양 의 미녀 대학생들)	50만
吴妈安达 (13.0만)	2020. 9. 28.	美食探店vlog, 望京玉流馆正宗朝鲜餐厅 (미식 탐방 vlog, 왕징 옥류관 정통 조선 레스토랑)	3674
破产兄弟 BrokeBros (210.4만)	2021. 6. 12.	朝鲜人在北京开餐厅? 平壤小姐演唱唱的中文歌, 和香港 有关!(북한 사람들이 베이징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요? 평양 아가씨들이 홍콩과 관련된 중국 노래를 부르네요!)	33.4만
特厨魏味 (42.5만)	2024. 6. 25.	朝鲜国宴级的餐厅味道怎么样, 魏厨来尝尝玉流馆(북한 국민연회급 레스토랑 맛이 어떤지, 웨이 셰프가 맛보러 왔 다: 옥류관)	39.2만
真探来了 (140.2만)	2022. 3. 30.	久闻大名玉流馆, 国宴级别的朝餐什么样(오래전부터 유 명하다던 옥류관, 국민연회급 조선요리는 어떤 맛일까)	197.5만
帅真财经 (3.1만)	2024. 3. 19.	50家朝鲜餐厅辛苦创汇, 将军又添了辆迈巴赫(북한 레스토랑 50곳이 힘들게 외화를 벌어들이면, 장군님께서 마이바 흐 한 대를 또 추가하신다)	10.6만
冒险雷探长 (222.2만)	2020. 12. 21.	在朝鲜饭店过生日是种什么样的体验? (북한 레스토랑에서 생일파티하면 어떤 느낌일까?)	17.6만
起飞一仔 (6.6만)	2024. 4. 25.	再也不用去朝鲜啦! 上海的朝鲜歌舞团餐厅! (북한 갈 필요 없다! 상하이에 북한가무단 식당이 있다)	2582
Frank龙少在希腊 (12.5만)	2023. 10. 20.	在北京的正宗朝鲜妹子, 你敢廖吗? (베이징에 있는 진짜 북한 아가씨들, 당신은 감히 말을 걸 수 있나요?)	6.7만

당 방문 기록을 담은 영상을 분석 대상으로 하며, 쇼츠(shorts) 형식의 영상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구독자수와 조회수가 높지 않은 영상들도 다수 있는데, 이는 북한식당을 방문하거나 소개하는 동영상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구독자수나 조회수보다는 북한식당 방문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동영상을 선별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검색하여 선별한 동영상 텍스트는 위의 표 1과 같다.

덧붙여 북한식당의 현지화를 통한 재현 전략의 조정을 다룰 때에는 한국인들의 북한식당 출입을 다루는 동영상 텍스트도 가져와 비교의 참조점으로 활용할 것이다.

III. 젠더화와 금지 규칙들: 대립적 이미지의 재현

권현익과 정병호는 미국 사회학자이자 인류학자인 클리퍼드 기어츠의 ‘극장 국가’ 개념을 북한에 적용하면서, 북한이 물리적 강제력이 아니라 상징과 의례를 통해 정통성과 권위를 재생산하는 체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북한의 화려한 의례와 공연(집단체조, 혁명가극 등)이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권력의 본질적 작동원리라고 보았으며, 그렇기에 놀라운 탄력성도 갖고 있다고 관찰하였다(권현익·정병호, 2013: 12). 선전을 권력의 본질적 구성부분으로 보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선전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과 그것이 놀라운 탄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은 해외의 북한식당에서 아주 잘 드러난다.

1. 대립적 재현과 방문객들의 호기심

우리는 북한식당을 통해 북한체제가 어떠한 전략과 의도를 관철시키려 하는지에 대해서는 단지 추측할 수밖에 없다. 북한식당 종업원이든 현재 북한 거주자든 만나거나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뿐 아니라 서구 세계가 북한이라는 폐쇄 국가에 갖는 광범위한 인상에 의거해서 분석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본고는 해외에서의 체제선전과 외화획득 이 두 가지를 북한식당의 목표로 전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볼 때, 북한식당의 일차적인 선전 기능은

북한의 폐쇄적 이미지를 선전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식당은 북한 영토 바깥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재현물을 북한 외부에서 재현하는, 다시 말해 ‘재현을 재현’하는 초국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이지연, 2023). 북한적인 것을 식당 공간과 식당에서의 행위수행(서비스, 음식, 공연 등)을 통해 재현하는 것이다. 북한식당은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여성노동자들의 ‘젠더적 재현’을 최대한 활용해 기존 이미지와 ‘대립’되는 이미지로 재현하려 한다. 젠더적 재현의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대립적 이미지의 공존을 먼저 살펴보자.

서구인과 여러 나라 사람들의 시선에 담긴 핵무기와 독재의 국가라는 이미지와 북한식당 여성종업원의 친절함과 서비스에 기반하는 젠더화된 이미지는 충돌한다. 소비공간으로서의 북한식당은 이 같은 ‘대립적 재현’이 공존한다는 태생적 조건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북한식당에서는 한편으로는 음식 서빙과 공연 등으로 여성성을 극대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진촬영을 금지하거나 정치적인 대화나 사적 대화는 금지한다.

북한식당을 방문하여 몰래 영상을 찍은 한 크리에이터는 한국인 친구와 제 아내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한국인 친구는 “너 죽으러 갔냐”고 말하고, 제 아내는 “장비를 부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야”라고 했어요. 겁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吳媽安達).

조선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비록 아름답고 피부가 하얗고 다리가 긴 조선 아가씨들이 함께하며 노래하고 춤을 추지만, 우리는 그들과 신체 접촉을 할 수 없고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해도 못 알아듣는 척하며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양 아내를 얻고 싶어 하는 솔로들은 일찌감치 이런 마음을 접어야 합니다(帥真財經; 강조는 인용자).

만약 그들 앞에서 김정은에 대해 나쁜 말을 하면, 그들은 “우리는 정말 그를 존경합니다”라고 말하고 더 이상 말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어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저는 서비스 직원들과 정치와 관련된 어떤 주제도 강제로 대화하지 않았어요(雷斯林 raist; 강조는 인용자).



출처: 吴妈安达, 2020. 9. 28.

그림 1 베이징시의 한 북한식당에 방문하여 물레 촬영을 시도하는 중국 크리에이터

이처럼 젠더화된 이미지를 제공하면서도 정치적 제약을 부과하는 모순된 과업을 수행하려다 보니, 손님과 종업원 쌍방의 ‘정치적’ 대화가 금지될 뿐 아니라, 사적인 관계의 형성도 금지한다. 그렇기에 중국 남성들에게도 북한 여성과의 연애나 결혼 시도가 원칙상 금지된다. 북한 여성종업원은 정치적이고 불편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못 알아들은 척하거나 웃기만 하는 등 엄격한 상호작용 규칙을 수행한다.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금지하는 규칙(다만 공연 촬영은 허용된다)은 북한식당과 북한체제에 대해 기존의 독재국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관광객인 북한식당 방문자들은 식당을 “공짜로 홍보”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것을 정당화하지만, 북한식당은 소비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아닌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녹화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정말 답답하네요. 사실 공연은 정말 좋았어요. 노래를 특별히 잘 불렀고, 비록 10여 분밖에 안 됐지만 꽤 좋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 답답한 건 뭐냐면, 그들을 녹화할 수 없어서 도둑 보듯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당신을 도둑처럼 지켜봐요. 사진 찍고 동영상 녹화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지켜봐요. 정말 답답했어요. 그렇게 좋은 걸 공짜로 홍보해주는데도 안 된다고 하네요(Frank龙少在希腊; 강조는 인용자).

소비와 관광의 틀 내에 정치적 제약을 삽입시킨다는 점에서, 방문객과 북한식

당 사이에는 여러모로 기이한 긴장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사진 금지 규칙을 다르게 해석해볼 수도 있다. 식당에 들어가서 허락 없이 종업원 얼굴을 찍는 것 자체가 분명 무례하거나 이상한 행동이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문제는 관광 대상이 폐쇄적인 나라 북한이어서 손님들이 ‘호기심’을 잔뜩 갖고 식당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손님 입장에서서는 여느 관광객들이 그러하듯 특이한 것을 찍고 싶어 한다. 하지만 어떤 식당이든 종업원의 사진이나 동영상 찍을 때에는 종업원과 식당의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 중국인 크리에이터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무례하게 카메라를 그들[종업원들]에게 향하지는 마세요. 사실 이것이 특별한 요구 사항은 아니죠. 어떤 식당에서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공연은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지만 전문 촬영장비가 아닌 휴대폰을 사용해야 해요(雷斯林raist; 강조는 인용자).

지금도 많은 방문객들이 호기심으로 북한식당을 몰래 촬영하고자 애쓰며, 종업원에게 말을 붙이고 싶어 한다. 결국 종업원들이 모든 질문을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종업원들의 감각적인 선별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를테면 “중국어 어디서 배웠어요?” 정도의 질문에는 “여기 중국에 와서 배웠다”고 대답하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관광객들이 품고 있는 호기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진촬영 금지 규칙을 문제 삼기 전에,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관광객의 태도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남한이든 중국이든, 여타 다른 나라든 마찬가지다. 호기심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측면의 요인이기 때문이다. 손님은 북한식당의 금지 규칙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때문에 북한식당이라는 소비 공간에 들어간다.

이러한 금지와 호기심의 상호 역학을 고려한다면, 북한식당은 북한에 대한 정보의 차단과 금지로부터 발생하는 ‘호기심 자본(curiosity capital)’을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사업공간이라 할 수 있다. 헤이스팅스가 지적했듯이, 북한은 글로벌 경제로부터의 ‘고립’을 활용하여 글로벌 경제의 틈새시장을 찾아내고 활용한다(Hastings, 2016: 126). 이를 표면적으로 보면 일종의 정치 상품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다른 어떤 국가보다 폐쇄적이므로 정치 상품화로만 기술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선전은 보통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일방적일 경우 호기심을 자아 내지 못한다. 반대로 손님이 기존에 가진 호기심만으로 사업을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북한 본토가 아닌 해외에 위치하는 북한식당은 일방적인 정치적 선전과 호기심 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식당은 특별한 서비스와 실천, 즉 신비로움의 생산을 통해, 손님들의 호기심 자본이 지속/재생산되도록 만든다.

2. 호기심 자본의 유지를 위하여: 서비스, 음식, 공연과 ‘신비로움’

앞서 언급했듯이 호기심 자본에 의지해서만 식당을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식당에는 서비스와 음식, 무엇보다 가장 독특한 특징인 공연이 존재한다. 이 모두는 서비스업의 감정노동에 정치적인 것이 부과된 ‘정치적 감정노동’을 요구한다.⁷

북한식당의 내밀한 핵심은, 접근할 수 없는 것을 접근하는 것에서 오는 ‘신비로움’이다. 신비로움은 알지 못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속성이므로 북한은 신비로움 나라가 되는 것이다(주윤정, 2017). 신비로움은 앞서 언급한 호기심 자본을 지속적으로 획득할 뿐 아니라,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선전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상징적 내기물(*enjeux symboliques*, 부르디외, 2015: 175)이다. 북한식당 방문을 일종의 방문자와 종업원(북한) 상호 간 게임이라고 간주한다면, 북한식당을 둘러싼 신비함이 사라진다면 방문의 가치도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부르디외의 상징적 내기물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⁷ 흑실드의 ‘감정노동(emotional labor)’ 개념을 북한식당 여성종업원의 감정 노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치적’ 감정노동이라고 명명해 보았다(흑실드, 2009). 감정노동에는 감정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뿐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멈추는 것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흑실드, 2009: 6). 흑실드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감정을 일종의 자본, 즉 감정자본으로 투입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식당에서 관객들의 호기심 자본에 대응하는 것은 여성종업원들의 감정자본이라 볼 수 있다(흑실드, 2009: 234). “감정을 관리하고 관계에 관련된 노동을 하는 능력은 여성에게 더욱 중요한 자원이다”(흑실드, 2009: 208).

이 신비로움은 물론 일차적으로 젠더화와 결합되어 발생한다. 대부분의 동영상이 크리에이터들이 북한 여성종업원의 미모와 서비스를 부각시킨다. 젠더화된 속성은 선전의 목적에 대체로 종속되지만, 관광객들 시선에서는 젠더화된 속성이 전면에서 부각되기 때문에 북한이 목적으로 삼는 체제선전이 정확히 관찰된다고 보다는 핵과 독재라는 속성이 잠시 희미해지는 것(예를 들어 “아가씨들이 예쁘다는 것만을 기억한대요,”)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북한식당에는 평상시 남성 종업원(직원)이 등장하지 않는다. 남성 직원은 고프만의 용어로 무대후면(back stage)에 숨어있다(고프만, 2016). 따라서 무대전면(front stage)에 배치되는 여성종업원들의 미모와 외모야말로 북한식당에 대한 경험을 진술할 때 가장 앞자리를 차지한다.

게다가 이 식당에는 남성 직원이 전혀 없고, 모두 매우 예쁜 아가씨들뿐이에요. 주목할 점은 이곳이 1인당 200위안 정도 하는 식당이라는 거예요. 보통 1인당 200위안 정도 하는 식당에서는 이렇게 많은 젊고 예쁜 서비스 직원을 고용할 수 없어요. 더구나 이 직원들은 모두 믿기 힘들 정도로 열정적이고 전문적이에요(雷斯林raist; 강조는 인용자).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에 얼굴은 손바닥만큼 작습니다. ... 지금 저는 마치 북한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이곳의 북한 여성들은 배우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帅真财经; 강조는 인용자).

[북한식당은-인용자] 외관만 봐도 꽤 신비로워 보이더라고요. ... 아이 아빠가 운 좋게 친구 덕분에 한 번 가봤대요. 뭘 먹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음식이 엄청 비싸고 아가씨들이 엄청 예쁘다는 것만 기억한대요(帅真财经; 강조는 인용자).

신비로움 생산의 핵심장치는 여성종업원들의 ‘공연’이라 할 수 있다. 공연은 북한이 재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 앞무대를 ‘최대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징의 차오양구 왕징가도에 위치한 북한식당 옥류관의 공연은 북한식의 노래와 춤을 보여주는 민족 공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아코디언 연주를 하거나 중국 대중가요를 부르기도 한다. 고프만이 강조하듯 뒷무대



출처: 破产兄弟BrokeBros, 2021. 6. 12.

그림 2 북한식당의 공연 장면

는 드러나면 안 된다. 뒷무대는 지배인 남성이든, 여종업원들의 사적 삶이든,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⁸

공연이라는 장치가 신비로움을 생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여성종업원들을 ‘예술가’로 정체화(identify)하기 때문이다. 공연은 손님들이 종업원을 일반적인 식당 종업원이 아니라고 여기게 만든다. 이를 통해 여성종업원을 손님들이 하대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통상적인 문제를 극복하거나, 손님들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 금지와 제약을 용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정말로 30분 넘게 공연했는데, 마치 대규모 정규 문화예술 공연 같았어요. 사실 이

⁸ 그러나 SNS시대의 젠더화된 속성을 최대화하는 재현들의 범람 속에서, 관광객들은 종업원들의 사적 존재에 주목하고 그것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식당 종업원의 사례는 아니지만, 북한 관광가이드가 중국 동영상플랫폼에서 지나치게 유명해져서 ‘왕홍’(SNS인플루언서)이 된 사건을 들 수 있다. 북한 본토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던 한 북한 여성가이드가 중국의 동영상플랫폼에서 유명인사가 되었던 것이다. 관광가이드의 경우 식당 종업원에 비해 사적인 대화 규칙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어렵고 사진촬영을 금지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阿杜谈海外, 2021. 6. 28., “神秘网红: 朝鲜女导游为什么会成为流量代言”, <https://baijiahao.baidu.com/s?id=1703802011793775065&wfr=spider&for=pc>(검색일: 2025. 10. 2.).

런 공연은 상하이의 어느 레스토랑에도 대체할 수 없을 거예요(起飞一仔; 강조는 인용자).

이곳 직원들은 마치 전능한 예술가 같아요. 중국어로 노래하고 춤추고 음식도 서빙하고요(起飞一仔; 강조는 인용자).

종업원 정체성이 예술가 정체성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이 단지 공연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연기가 아닌 것 같은 ‘진정성’의 이미지를 관객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서비스 직원들이 내면에서 우리나라의 미소를 짓고 있어서, 그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雷斯林raist; 강조는 인용자).

공연 역량과 진정성 이미지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추가적인 요소도 존재한다. 북한식당 여성종업원에게는 선발과정 및 출신성분과 연관된 ‘지적 이미지’가 부여되기도 한다. 북한식당 종업원의 선발 과정은 일반적인 식당종업원 선발과정과 다르며, 이들의 출신성분도 좋다는 점이 중국에는 잘 알려져 있다(Hastings, 2016: 130). 한 크리에이터는 이들이 “모두 예외 없이 북한 여대생들”이라고 말한다(雷斯林raist). 고위간부의 자녀일수록 선발에 유리하며, 식당 경력은 일종의 해외유학이나 해외연수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외국어 능력도 반드시 요구되며, 실제로 중국어와 영어를 웬만큼 구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을 중국인들이 알게 될 경우, 종업원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북한 여성들은 대부분 22세 정도이고, 기본적으로 대학 졸업 후 선발 과정을 거쳐 온 사람들이예요. 우선 외모가 좋아야 하고, 근면하고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어야 해요. 중국에 와서 일할 기회는 매우 귀하고, 기간은 단 3년뿐이에요.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합니다. 그들의 월급은 2,000위안 정도로 우리 쪽에서는 최저 수준이지만, 북한 여성들은 일하는 동안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소비가 없어서 3년 동안의 월급을 가지고 귀국하면 확실히 부자가 됩니다(虎先生tiger).

이러한 요소들은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입장에서는 자부심 또는 (나랏일을 한다는) 공적 의식을 갖도록 할 수 있다. 종업원들의 개인생애사 측면에서 봐도, 북한식당의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통제하에서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소비를 덜 하게 되고 북한으로 귀국할 때쯤에는 목돈을 가질 수 있게 된다(이지연, 2023: 145). 그들의 복무기한은 대부분 3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계속해서 종업원을 할 수도, 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들에게 북한식당 경력은 일종의 ‘스펙’으로 간주되는 듯하다. 만일 종업원들의 개인 생애사에서의 이득을 고려하면, 식당의 운영에 대한 ‘동의’ 기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종업원들이 일방적인 강제하에 놓여 있다 고만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북한식당 종업원들은 탈북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한다(이지연, 2023: 142).

북한식당을 방문한 중국인들은 북한종업원들이 본인들보다 중국 역사를 더 잘 알고 있는 데 놀라면서 종업원들이 매우 ‘지적’이라고 평가한다. 엘리트라는 인상은 종업원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을 더욱 고양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매우 교양 있어요. 식사 중에 한 아가씨가 아버지께 “어디서 오셨어요?”라고 물었고, 아버지가 “난징”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녀가 난징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즉시 난징의 역사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난징이 육조고도였던 것부터 주체(朱棣)가 수도를 옮긴 이야기까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난징 육조고도가 각각 어느 왕조인지도 알고 있어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아마 많은 난징 사람들도 모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국 문화를 열심히 공부했고, 중국 문화에 대해 공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雷斯林raist; 강조는 인용자).

3. 음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그런데 북한식당이 신비로움을 생산하는 핵심 무기인 공연을 손님들이 재미 없어 한다면 어떻게 될까? 공연을 재미없어 하는 손님들은 북한식당의 음식 가격에 민감하다. 북한식당의 음식값에는 사실 공연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연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면 손님들은 음식값이 비싸다고 토로할 수밖에 없다.

정치에는 매우 무관심한, 그야말로 음식만 평가하는 크리에이터는 김치와 신

선로는 높게 평가하되 다른 음식들은 박하게 평가하면서 음식값이 비싸다는 점을 강조한다. 어떤 크리에이터는 한국과 북한 음식을 먹으려면 차라리 ‘조선족 식당’이 낫다고 주장한다.

음식 가격이 비교적 비쌉니다. 최저가는 880위안이고, 최고가는 5,888위안인 세트 메뉴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호화로운 내용이 들어있는지.. 정말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破产兄弟BrokeBros).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특별히 멍멍하고 맛이 별로 없어요. 옥류관의 이 신선로는 별로 신선하지 않네요. 식재료 선택이 정교하지 않아요. 감칠맛도 없고 뒷맛도 없어요. 이 냄비는 정말 그저 그래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국내 조선족 식당이 더 정교하게 만들어요. 288위안, 이걸 좀 바가지네요. 전부 냉동품이라 값어치가 없어요. 여기 새우살은 총 두 개뿐이에요(特厨魏味).

이처럼 소비자가 북한식당을 음식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경우, 북한적인 것에 대한 기존의 재현 전략이 관철되기 어려워진다. 북한식당의 비싼 식사비에 공연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음식의 질과 관련된 리스크를 방지할 뿐이다. 하지만 공연이 저녁 내내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대를 못 맞추면 식사만 하고 공연은 제대로 관람하지 못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처음에는 식사만을 위해 방문했지만 공연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방문하는 이들도 있다.



출처: 冒险雷探长, 2020. 12. 21.(좌); 飞向月球的田二哈, 2021. 6. 10.(우)

그림 3 북한식당은 공식 공연 외에도 손님들에게 여러 이벤트를 제공

종업원들은 손님들의 생일파티를 해주고 사진을 같이 찍거나, 공연 중에 손님들을 무대로 불러 같이 춤을 추고 같이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공연 이벤트는 놀이공원적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일부 손님들은 다른 식당과는 달리 존중받고 환대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북한식당에는 음식의 질 이외에도 서비스와 공연들이 있다. 북한식당 종업원의 서비스는 대체로 훌륭하다고 평가된다. 많은 방문객들이 서비스를 칭찬한다. 예를 들어 식당 내에 테이블 수가 많지 않고 한 테이블에 여러 명의 직원이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다.

물을 채우고 술을 따르는 것, 모든 요리를 잘라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두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는 전체 식당에 손님이 두 테이블밖에 없어서 각 테이블에 한 명의 직원이면 충분한데도, 거의 모든 테이블에 네 명 이상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술을 따르는 사람, 요리를 소개하는 사람, 차를 따르는 사람,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雷斯林raist).

단순히 서비스의 훌륭함이 북한식당을 설명해줄 수는 없다. 대부분은 젠더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열 명 남짓의 북한 아가씨들이 저와 부모님을 둘러싸고 함께 “어서오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식당을 열정적으로 소개했는데, 각자의 목소리가 모두 가늘고 작아서 마치 작은 새 소리 같았어요. ‘앵앵연연(鶯鶯燕燕, 피꼬리와 제비처럼 아름다운 여인들)’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완전히 체감할 수 있었죠. 게다가 이 식당에는 남성 직원이 전혀 없고, 모두 매우 예쁜 아가씨들뿐이에요. 주목할 점은 이곳이 1인당 200위안 정도 하는 식당이라는 거예요. 보통 1인당 200위안 정도 하는 식당에서는 이렇게 많은, 젊고 예쁜 서비스 직원을 고용할 수 없어요(雷斯林raist).

북한은 강력한 유엔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주노동을 통한 자유롭고 개별화된 송금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물론 별도의 브로커를 통하여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⁹

이처럼 북한식당은 젠더화와 결합된 재현 전략을 통해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지속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젠더화 전략을 밀고 나가다 보면, 북한 당국이 북한식당을 통해서 과연 제대로 외화벌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선전이라는 정치적 목적은 달성하더라도 경제적 이윤의 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닐까.¹⁰

젠더화된 서비스와 공연은 북한적인 것을 재현하는 것에 있어서 효과적인 신비로움 창출 못지않게 ‘리스크’도 야기한다. 이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식당은 고객의 시선과 취향에 맞게 재현 전략을 지속적으로 조정·적응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조정과 적응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음 절에서는 신비로움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V. 조정과 적응에 수반되는 리스크

서론에서 북한식당이 북한 영토 외부에 있는 초국적 공간이기에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수요자에 맞추어 선전의 내용을 여러모로 조정하고 적응하는 작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공급자-북한당국의 노력이 리스크에 처하기도 한다.

앞서 서술한 대단한 서비스와 공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훈련, 단체

⁹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75호는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의 신규 파견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결의 제2397호는 이미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송환토록 했다[정희완, “중국, 북한 노동자 전원 복귀 요구?...중국 ‘억측과 과장’”, 경향신문, 2024. 7. 9].

뿐만 아니라 외화 거래 제한도 대북제재에 포함된다. 대북제재는 북한식당이 쇠퇴하는 요인이 되었다(Lim, 2020: 114). 그러나 현재 라오스,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의 해외 북한 식당은 여전히 운영 중이다[김연지, “[대북제재 효과는] 경제 압박 불구 北 잇따라 도발...제재 실효성 ‘글썸’”, 매일일보, 2023. 3. 13.(검색일: 2024. 7. 29)].

¹⁰ 북한 전문가 Alexandre Mansourov는 북한 식당이 비밀 정보 및 기타 작전에서의 역할이 외화 획득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Bill Gertz, October 15, 2013, “North Korea’s Overseas Restaurants Used for Espionage and Gaining Hard Currency,” *The Washington Free Beacon*. <https://freebeacon.com/national-security/north-koreas-overseas-restaurants-used-for-espionage-and-gaining-hard-currency/> (검색일: 2026. 1. 23.).

숙소 생활, 관리자 인건비 등으로 꽤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한 테이블에 많은 종업원이 달려들어 서비스하는 것도 비용 발생 요인이다. 더 많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겠지만, 체제 선전이라는 목적 때문에 서비스와 공연의 질을 하락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차라리 식당을 폐쇄하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식당을 여성 노동력의 착취나 여성 이주노동의 관점에서만 보기는 어려우며,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점들은 기존 북한 이미지와 대립되는 이미지를 선전하기 위한 젠더화 노선이라는 틀에서 봐야 할 것이다.

1. 젠더화 조정이 야기하는 리스크

북한식당에서는 단순히 북한적 미학(혁명가요나 조선가요 등)만을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최신가요를 중국어로 부르고, 전자기타를 치거나, 최신곡의 댄스를 추기도 하는 등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수용자 입장의 요소들을 많이 포함한다. 그런데 조정과 적응 과정에서 여종업원의 젠더 디스플레이(gender display)가 더욱 강화된다(Goffman, 1976: 69).

공연은 어땠냐고요? 재미있었냐고요? 재미있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북한 전통 공연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들의 장식이나 의상이 모두 매우 북한 스타일이었거든요. 매우 예쁜 아가씨 한 명이 올라와서 북한 민요를 불러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두 명의 아가씨가 올라왔고, 세 명이 서투른 중국어로 리틀 타이거 팀(小虎队,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유명했던 대만의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 명의 아가씨들이 갑자기 전자 악기를 들고 나왔어요. 일렉트릭 기타, 드럼, 전자 키보드로 록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록 버전의 여자 십이악방(중국의 여성 전통 악기 연주단을 일컫는 말) 같았어요. ...

재즈 댄스와 탭 댄스도 추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양금과 기타를 치고, 베이스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색소폰을 불고 드럼을 치기도 해요. 게다가 정확한 발음과 민족적인 창법으로 중국 대중음악도 불러요(雷斯林raist).



출처: 雷斯林raist

그림 4 중국 대중음악을 중국어로 부르는 북한식당 공연 장면



출처: 雷斯林raist

그림 5 각종 악기를 활용하여 현지화를 시도하는 북한식당 공연

공연에는 앞 사진처럼 대만노래, 일렉트릭 기타, 드럼, 전자 키보드, 록음악, 재즈댄스, 탭댄스, 색소폰 등 새로운 음악과 악기들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지화(localizing)’를 수반하는 조정과 적응 전략은 미학적인 측면에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밴드공연자들과 유사하다. 이는 중국인들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문화요소들이다. 이처럼 젠더화되면서도 현지화되는 공연은 냉전기 중국 영화에서 북한이 여성적인 것으로 표상되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의 가설이 맞다면, 중국인들은 냉전기에 북한을 여성적 표상으로 인식하였듯이, 북한식당에서도 유사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음식에서도 중국인의 입맛에 맞추려는 적응 작업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북한식 신선로(神仙爐)를 판매하면서 종업원들은 신선로가 중국 청나라에서 연원했으며 원래는 열구자탕으로 불렸다고 설명한다(Lim, 2020: 114). 또한 꺾바로우가 중국음식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하기도 한다. 북한 음식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말하면서, 음식문화의 기원에 있어 위계를 설정하는 듯하다.

방금 제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도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조선에 꺾바로우(鍋包肉)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언니가 매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것은 중국 요리라고요(破産兄弟BrokeBros).

방금 메뉴를 넘겨보니 파소해삼, 이몽소계, 그리고 일부 광둥요리도 있더라고요. 이 조선 식당도 현지에 맞춰 적응하는군요(特厨魏味).

2. 무엇이 진정 북한적인 것인가?: 재현의 혼란과 검열의 위기

이처럼 공연과 음식의 조정을 통해 현지화(localizing)하는 과정에서 북한적인 것의 진정성(authenticity)을 유지하는 것에 리스크가 발생한다. 북한의 체제와 문화를 선전하고 보급하려 하지만, 북한적인 것을 변용하고 재구성할 경우 북한적인 것을 훼손시킬 수 있다.

베이징의 한 북한식당은 마지막 곡을 북한 노래가 아닌 중국 노래 〈동방지주(東方之珠)〉로 마무리한다. 엔딩곡을 중국 노래로 하는 것은 북한 선전이라는 목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한 방문객은 요리를 맛보면서 이것이 단지 중국음식과 북한음식의 차이인지, 조리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북한식당의 참기름 품질이 낮을 뿐 아니라 조리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북한 고유의 음식임을 기대했다가, 저품질의 음식이라는 평가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말미에 갑자기 “장군이 새 차로 바꾸려나요?”라고 덧붙인다.

중식과 조선 요리에 차이가 있나요? 원래대로라면 함께 이 맛을 우려내야 하는데요. 그리고 연한 인삼 반 뿌리 넣은 듯한 맛이 나요. 가짜 참기름 냄새도 나는데, 이 참기름 대신 좋은 참기름을 쓰면 되는데요. 중식 관점에서 이 요리를 평가하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찢 것도 아니고 조린 거예요. 찢 거라면 국물이 이렇게 걸쭉하게 졸여지지 않아요. 총 뼈 세 조각인데, 혹시 장군이 새 차로 바꾸려나요?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온 이곳은 소위 조선 국민만찬 수준의 식당이라고 하는데, 맛은 별로인데, 가격은 국민만찬 수준이네요. 저보고 직접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동북의 조선족 식당이 더 좋네요(特厨魏味).

북한식당이 중국음식을 수용하고 변용하기에 앞서, 중국에서는 조선족들이 이미 오랫동안 중국음식과 한민족 음식의 융합을 이루어왔다. 따라서 음식의 변용과정에서 조선족 식당이 북한식당의 잠재적 경쟁자로서 부상하는 리스크도 발생한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북한식당의 꺾바로우가 중국음식을 창의적으로 변용시켰다고 칭찬하거나, 심지어 한국요리보다 더 맛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평양 꺾바로우는 어떤지 평가해보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꺾바로우를 주문할 수 있는 곳이면 항상 주문하는 꺾바로우 전문가로서, 이렇게 특별한 꺾바로우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꺾바로우 68위안, 이 소스를 보세요. 탕초즙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뭔가 특별한 것을 넣은 것을 먹어봤는데, 매실 소스를 넣었어요. 정말 신기한데, 그냥 베끼지 않고 새로운 창의성을 더했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破产兄弟 BrokeBros).

음식은 어떠냐고요? 음식은 꽤 맛있어요. 처음에는 한국 요리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먹어보니 정말 한국 요리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우선 메뉴판에 큰 글씨로 “우리는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 식사 중에도 그들은 모든 식재료가 북한에서 공수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매우 좋은 특별 공급품이라고 하면서, MSG나 다른 맛 향상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雷斯林

raist).

총정리를 하면요, 북한식당 김치는 참 좋아요. 큰 무가 잘 절여져 있고 발효된 냄새가 고소하고 밥반찬으로 맛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요리가 정말 특색이 있다고 생각해요(真探來了).

이처럼 음식이 북한 고유의 특색으로 너그러이 수용된다면 북한적인 것의 리스크 관리에 성공한 셈이다.

그런데 2017년 유엔제재 이후에는 공연이나 서비스, 음식의 내용뿐 아니라 식당 소유권의 변동도 리스크를 발생시키고 있다. 일부 북한식당은 중국인 사장이 소유·관리하기 시작했다.¹¹ 중국인 소유라는 점 자체가 북한 체제 선전의 입장에서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식당 간판을 내걸지 않는 일반 중국식당에 북한여성이 노동력으로만 들어가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처럼 식당 소유주의 변동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적응 과제를 부과한다. 중국인 소유 식당의 경우 각각의 룸마다 별도의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다. 방마다 별도의 공연을 하면 손님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을 반드시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공연만 손님 마음에 든다면 음식값이 비싸다는 불평은 감소시킬 수 있다.

중국 외의 지역에서도 중국식당으로 위장한 북한식당이 존재한다.¹² 그런데 동남아시아의 북한식당은 남한인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경우가 많다.¹³ 남한 유

¹¹ 중국의 많은 북한식당은 북한기업과 노동력만 계약하는 중국기업 소유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2017년 UNSCR 2375호(북한 노동자 신규 취업 허가 금지), UNSCR 2397호(2019년 12월까지 24개월 이내 모든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의무화) 등 UN대북제재로 더욱 강화되었다. 노동비자 대신 유학생 비자로 종업원을 충원하거나, 이러한 중복 합작 형태가 제재 우회 전략이 되고 있다. 노동력만 제공하는 방식은 재정적 위험을 덜 감수하게 해준다. 소유구조에 따라 북한식당을 분류하면, 북한기업이 직접 소유하는 경우, 북한 사업체와 중국 파트너(중중 조선족)가 합작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중국인 소유로서 북한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총 세 가지다(Hastings, 2016: 127-128).

¹² 제이치핏, 중국식당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북한식당 방문기(2023. 2. 11.), https://youtu.be/ATo0xubLj34?si=keGv0bO25_nkS1U5(검색일: 2025. 6. 10.).

¹³ 헤이스팅스는 심지어 북한식당의 분포와 대상이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따라서 주로 설치



출처: 虎先生tiger, 2023. 5. 28.(좌); 龙哥, 2023. 2. 23.(우)

그림 6 각각의 룸마다 별도의 공연을 하는 중국인 소유의 식당들

튜버들의 중국 내 북한식당 출입 사례는 조정과 적응의 어려움을 더 잘 보여준다. 중국의 북한식당은 최근 들어 한국인(남한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켰다.¹⁴ 한국인이 북한의 선전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¹⁵ 그래서인지 중국 내 북한식당에 ‘잠입’하는 과정을 찍는 유튜브 동영상이 꽤 많으며 인기도 끌고 있다. 한국인들의 북한식당 방문이 금지되면서 북한식당 방문이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스킬과 긴장이 넘치는 색다른 경험이 된 듯하다. 식당 손님에게 입구에서부터 여권이나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한국인이 거의 확실해보일 경우에만 요구함), 종업원들은 생김새나 언어를 통해 한국인임을 ‘추론’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인 방문객들은 중국어나 일본어를 구사하는 전략을 활용한다.¹⁶ 어떤 이들은 조선족인 것처럼 연변말을 흉내내기도 한다.¹⁷ 중국인 여성이나 조선족과 동행

되어 있어 사실상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추론하였다(Hastings, 2016: 126).

¹⁴ 남한 사람이라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가로막는 경우도 있고, 예약이 꽉 찼다고 우회적으로 돌려대는 경우도 있다.

¹⁵ 다만 상하이 등 일부 북한식당의 경우는 한국인을 받는다는 보도가 있다. “주말만석이라 한국 손님도 받는 북한식당…공산당 찬양도”, 머니투데이(2024. 3. 10.), <https://www.mt.co.kr/society/2024/03/10/2024030813512372749>(검색일: 2025. 4. 23.).

¹⁶ “중국 북한식당 잠입기”[겂다가], https://youtu.be/jruWBqtei-o?si=-Ax_GWyIbS-mt4qc(검색일: 2025. 11. 12.).

¹⁷ “조선족 위장하고 북한 식당에 잠입해봤습니다”[여행자메이], <https://youtu.be/81VzAhNs6-s?si=15Pmc96iDR5iru0>(검색일: 2025. 11. 23.).

함으로써 입장과 식사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¹⁸ 동행 식사라도 종업원들은 한국어 쓰는 것을 발견하거나, 중국어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 남한사람을 내보내기도 한다.

그런데 북한여성이 중국의 일반 식당에 노동력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경우에는 (북한식당이 아니므로) 한국인을 차단할 수 없으며, 다만 '회피'할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리스크가 더욱 증폭된다. 북한 여성종업원은 남한 손님이 오면 일부러 조선말을 쓰지 않고 중국어를 사용하거나, 조선족 직원으로 교체해 서빙하도록 한다.¹⁹ 그러나 회피가 완벽할 수는 없다.

중국 외 국가의 북한식당에서도 남한인 출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한다. 아부다비의 한 북한식당에서는 방문한 한국인 남성에게 목소리가 좋다고 칭찬하면서, 노래방이 있으니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거나 북한술과 담배를 판매한다. 사적인 듯한 대화를 일부 허용하더라도 영업을 위한 것이다.²⁰ 상하이의 북한식당에 한국인으로 귀화한 핀란드인이 방문하는 경우, 생김새가 서양인이므로 아무 의심 없이 손님으로 받았다가 그의 능통한 한국어와 씹을 잘 싸먹는 모습을 보고 종업원들은 혼란에 빠진다.²¹ 심지어 남한으로 귀화한 탈북여성이 중국 내 북한식당에 방문할 경우, 이 '탈북자 남한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한다.²²

이러한 여러 사례들은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식당의 서비스를 어디까지 조정하고 적응할 것인지에 관해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북한식당이 소비공간으로서 이러한 리스크에 직면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그 리스

¹⁸ “중국에서 한국인이 중국여자와 북한 식당에서 먹방 찍으면 생기는 일”[CKOONY], <https://youtu.be/hxws1Cf2nnM?si=c3eel7HghBoE9oYJ>(검색일: 2025. 11. 24.).

¹⁹ “또래 한국인을 처음보는 북한 미녀분들의 반응”[여우씨 Mr Fox], <https://youtu.be/1AtWK2ZU0J4?si=3gZJlaqIhPgCtxEg>(검색일: 2025. 11. 24.).

²⁰ “북한 식당 종업원 출신 탈북민이 알려진 충격적인 속내”[랜선지구촌], <https://youtu.be/JTuSSPMWpn8?si=O0D3cJvGSLu31h6G>(검색일: 2025. 10. 5.).

²¹ “북한 음식점에서 대한외국인을 본 북한 종업원의 충격적인 반응”[랜선지구촌], <https://youtu.be/GL91OZ73TB8?si=cvBUz58przAnkMav>(검색일: 2025. 10. 5.).

²² “북한 음식점에서 탈북민 출신 한국인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랜선지구촌], https://youtu.be/tGNayx3J_hg?si=NEVOMPNEsbqnpu3H(검색일: 2025. 10. 5.).

크의 형태도 국제정세와 중국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변모할 것이다. 독재국가라는 이미지에 대립하는 북한식당의 젠더화 재현 전략은 이처럼 조정과 적응의 과정에서 지속적인 리스크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V. 젠더화된 오리엔탈리즘

앞서 서론에서 중국은 남성, 북한은 여성으로 위계화된 인식이 과거부터 중국에 존재했음을 대중문화의 역사 속에서 확인한 바 있다. 본 절에서는 젠더화와 그것이 야기하는 조정과 적응의 리스크에 담긴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을 규정하면서 서구의 시선이 동양을 여성적인 것으로 표상했다고 말했다(사이드, 2001: 24). 이와 유사하게도 중국은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위계설정하에서 여성적 표상에 기반하여 신비로워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이를 우리는 ‘젠더화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 맥락에서 북한식당의 젠더화는 중국과 북한 사이의 위계화와 어떤 구체적인 연관을 맺는가? 이는 중국인이 가난하고 폐쇄적인 타자로서의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연관되어 있다.

북한에 대해 말하자면, 사람들은 아마도 폐쇄적이고, 가난하고, 낙후되고, 독재적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나라가 상하이에 두 개의 식당을 가지고 있다니요. 이 식당의 특징은 뭘까요?(陈无忧在囹途; 강조는 인용자)

이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면 매우 억압적인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은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제 옆에 두 명의 북한 서비스 직원이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이 식당의 환경을 찍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매우 억압적이예요(吴妈安达; 강조는 인용자).

급여의 최소 70~80%는 상납할 거예요! 주머니를 긁어 모으는 황세인(중국 소설 「백모녀」의 악덕 지주)이 이걸 보면 눈물을 흘리며 자기보다 더하다고 느낄 거예요(虎先

生tiger 댓글).

북한은 계속해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해 왔기 때문에, 자신들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수출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것들은 수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도 수출하는 것 아닐까요?(帅真财经: 강 조는 인용자)

중국인들 역시 여타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과 유사하게 북한을 가난하고 억압적인 국가로 여기며, 북한인들이 정권에 의해 착취당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은 글로벌 자본주의체제에서의 일반적인 경제력에 따른 위계를 감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난, 독재, 억압 등이 연결되고, 그렇기에 북한이 음식이나 문화예술을 수출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한다.

글로벌한 경제적 위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지향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중국의 일부 집단들은 사회주의 노스탤지어의 각도로 북한을 인식한다. 중국의 마오주의 좌파 매체인 우여우즈샹(乌有之乡)은 북한여행기를 수시로 게재하면서 북한을 사회주의의 순수성을 고수하는 이상향으로 보기도 한다. 이는 중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 속에 사라져가는 사회주의에 대한 노스탤지어라고 볼 수 있다(주윤정, 2017: 113). 따라서 이들은 북한의 가난함을 순수함과 연계시킨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이러한 시각은 일부에 불과하다. 북한식당을 방문하는 크리에이터들 중 이러한 사회주의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 감성으로 북한 식당의 서비스와 공연을 바라보는 입장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중국인들은 북한종업원을 중국의 기밀을 탐지하는 비밀요원으로 보면서 경계심을 드러낸다. 한 동영상 본 시청자는 댓글에서 북한여성과의 연애 가능성을 상상한다. 물론 북한을 충분히 이해하기를 기대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이런 해외 주재 시설들은 북한의 중요한 정보 출처이기도 합니다. 서비스 직원 중에 누가 정보원인지 모를 일이지(帅真财经영상 댓글).

중국에서 일하도록 배정받은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일하는 동안 외국 남성과 연애를 하거나 결혼할 수 있는지 궁금해(帅真财经영상 댓글).

조선(북한)은 논란이 많은 나라입니다. 호기심이나 심지어 경멸보다는 ... 직접 방문해보시길 더 추천드립니다(破产兄弟BrokeBros).

따라서 중국인들에게는 가난한 독재 국가라는 이미지와 더불어 예쁘고 순수한—아마도 북중관계의 역사적 맥락에서 비롯된—아가씨들이라는 이미지가 북한식당에 대한 시선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북한식당이 중국 내 대도시와 동북도시에 널리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인만큼 호기심을 갖고 신비화하지는 않는다. 한국처럼 영상 조회수가 폭발적이지도 않다.

다만 중국인들은 현재의 경제적 격차를 반영하는 위계를 느끼고 확인하면서도, 질 좋은 공연을 다소 우호적으로 즐기는 수준이다. 중국인들은 북한에 대해 공격성이나 경계심을 크게 표출하지는 않으며, 마치 남성이 여성과의 위계를 설정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여성을 찬양하는 것처럼 북한은 중국의 도움을 기다리는 존재로 표상되고 있는 것이다.²³

VI. 나오며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정리해보자. 중국 내 북한식당을 대상으로 북한의 재현 전략과 중국인 수용자의 시선, 그리고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북한식당은 북한 영토 외부에 위치한 초국적 소비공간으로서 북한체제 선전과 외화획득이라는 이중 목적을 수행하고 있지만, 소비공간의 특성상 공급자(북한)뿐만 아니라 수요자(중국인)의 시선과 취향을 고려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북한식당은 핵과 독재라는 기존 이미지와 대립되는 이미지를 재현하기 위해 젠더화 전략을 적극 활용한다. 여성종업원의 서비스와 공연을 통해 친절하고 예술적인 북한의 이미지를 구축하면서도, 사진촬영 금지, 정치적 대화 금지 등의 대립적인 규칙을 병존시킨다. 이러한 대립적 재현은 북한식당의 태생적 모

²³ 남한인들의 경우에는 북한식당 방문을 통해 민족적 동질감과 낯설을 동시에 느끼면서, 내부 오리엔탈리즘(internal orientalism)을 가동시킨다. 북한식당이 젠더화보다는 ‘안보화’된 장소로 점점 표상되면서 부정적으로 타자화되기 때문이다(이지연, 2024: 205, 207).

순이라 할 수 있다. 여성종업원들은 고위간부 출신의 엘리트로 선발되며, 예술가로 정체화되는 공연을 통해 ‘신비로움’이라는 상징자본을 생산한다. 이는 북한식당 이윤의 기반이 되는 폐쇄적 국가인 북한에 대한 ‘호기심 자본’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다. 그러나 중국인 수용자의 취향에 맞추어 재현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발생한다. 중국 대중가요, 전자기타, 재즈댄스 등 현지화된 공연 요소의 도입은 젠더 디스플레이를 강화하면서도 ‘북한적인 것’의 진정성을 위태롭게 한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중국인 소유 식당의 증가, 한국인 출입 차단의 어려움 등이 북한식당의 재현 전략에 지속적인 도전을 제기한다. 중국인 수용자의 북한식당 인식은 냉전기부터 형성된 북중관계의 역사적 맥락, 즉 중국(남성)-북한(여성)의 젠더화된 위계구조 속에서 작동한다. 이를 ‘젠더화된 오리엔탈리즘’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 북한식당을 통해 중국인들이 중국과 북한과의 경제적 위계를 인식하면서도 북한을 존중하고 신비화하는 양가적 태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통상적인 식민지적 관계로 볼 수는 없겠지만,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점점 격차를 벌려가는 양국의 경제는, 과거로부터의 우의를 이어가면서도 그것을 새로운 형태로 변형시키는 듯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식당은 이러한 중국인들의 시선에 따라 주로 젠더화 노선을 중심으로 재현 전략을 변형시켜왔다. 그러한 조정과 적응이 갖는 리스크는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이며 여성종업원들의 고도의 감정노동을 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만큼 북한식당의 관리와 통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북한식당은 공연이 있는 곳도 있지만 음식만 제공하는 곳도 있다. 중국과 달리 한국인들을 주 고객으로 삼기 때문이다(이지연, 2023: 147). 앞서 언급했듯 한국인은 선전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북한식당은 순수하게 외화벌이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이 소위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지 모른다는 점을 알면서도 같은 민족의 ‘음식’을 먹는다는 관광 체험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평양냉면을 먹는다. 음식의 동질성은 아마 민족 동질성의 핵심이기 때문일 것이다. 남한인들에게는 공연 없이도 호기심 자본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실상 북한식당의 최상의 고객은 압도적인 호기심을 가진 한국인들일 것이다. 반면 젠더화된 공연이 필수적인 중국 내 북한 식당의 경우,

단순한 선전도 단순한 외화벌이도 아닌, 북중 관계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작동하는 젠더화된 오리엔탈리즘의 구조가 그 핵심에 자리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북한식당은 중국인의 이와 같은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에 부응함으로써만 외화벌이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25년 10월 15일 | 심사일: 2026년 2월 25일 | 게재확정일: 2026년 3월 31일

참고문헌

- 고프먼, 어빙. 2016. 『자아 연출의 사회학: 일상이라는 무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연기하는가』. 진수미 역. 서울: 현암사.
- 권익·정병호. 2013.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파주: 창비.
- 김란. 2017. “중국 영화와 드라마의 ‘항미원조’ 재현”. 박명규·백지운 편. 『중국 일상 속 북한 이미지』, 119-150. 과천: 진인진.
- 나이, 조지프. 2004. 『소프트 파워』. 홍수현 역. 성남: 세종연구원.
- 박명규. 2017. “남북한을 보는 중국의 시선”. 박명규·백지운 편. 『중국 일상 속 북한 이미지』, 5-22. 과천: 진인진.
- 이지연. 2024. “해외 북한식당에서의 민족과 분단: 내부 오리엔탈리즘과 안보화”. 『사회이론』 65: 177-211.
- _____. 2023. “초국적 공간에서 북한 여성의 노동과 재현의 정치: 젠더, 인종, 계급의 교차와 ‘북한적인 것’의 구성”. 『한국여성학』 39(1): 137-170.
- 주윤정. 2017. “‘신비의 나라’: 중국인의 북한관광”. 박명규·백지운 편. 『중국 일상 속 북한 이미지』, 93-118. 과천: 진인진.
- 보드리야르, 장. 2001. 『시뮬라시옹』. 하태환 역. 서울: 민음사.
- 부르디외, 피에르. 2015. 『성찰적 사회학으로의 초대』. 이상길 역. 서울: 그린비.
- 사이드, 에드워드. 2015.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역. 서울: 교보문고.
- 하상우. 2019. “이중적 권력기제, 몸 정치의 발생: 태국 북한식당 공연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 55: 353-371.
- 한담. 2025. 『기억된 전쟁, 만들어진 중국: 항미원조의 문화정치학』. 서울: 나뭇잎스.
- 혹실드, 엘리 러셀. 2009. 『감정노동: 노동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상품으로 만드는가』.

이가람 역. 서울: 이매진.

- Flinck, Katariina. 2022. "Globalizing the DPRK: Domestic Developments and Cultural Globalization in North Korean Cuisine." *North Korean Review* 18(1): 28-47.
- Ghimire, Krishna B. (ed). 2001. *The Native Tourist Mass Tourism within Developing Countries*. London: Earthscan.
- Goffman, Erving. 1976. "Gender display." *Studies in Visual Communications* 3(2): 69-77.
- Hastings, Justin. 2018. *A Most Enterprising Country: North Korea in the Global Economy*.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Lash, Scott and Lury, Celia. 2007. *Global Culture Industry: The Mediation of Things*. Cambridge: Polity Press.
- Lim, Tai Wei. 2020. "Exporting North Korean Food Culture and Cuisines." *North Korean Review* 16(2): 111-120.
- Piper, Nicola. 2008. "Feminization of Migration and the Social Dimensions of Development: the Asian Case." *Third World Quarterly* 29(7): 1287-1303.
- Sonenshine, Tara, Paul Rockower and Kimberly Redd. 2016. "Culinary Diplomacy, Gastrodiplomacy, and Conflict Cuisine Defining the Field." in *Is the Kitchen the New Venue of Foreign Policy?*, 9-11. Washington, D.C.: American University School of International Service.
- Urry, John. 2002. *Tourist Gaze: Leisure and Travel in Contemporary Society*. London: Sage Publication.
- Weaver, David and Chuanzhong Tang. 2021. "Effect of vicarious destination exposure on travel intention: North Korean-themed live restaurant performances in China."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40: 1-12.

인터넷 자료

- 김연지. 2023. 3. 13. "[대북제재 효과는] 경제 압박 불구 北 잇따라 도발...제재 실효성 '글세'." 매일일보.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95407> (검색일: 2024. 7. 29.).
- 오중석. 2023. 9. 1. "해외의 북한식당." 자유아시아방송.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2dcc0ac/c624c911c11dc758-bd81d55cc0ddac01/

- nkthought-09012023092001.html(검색일: 2026. 1. 3.).
- 전경용. 2016. 2. 15. “해외 북한식당 이용? 김정은에 ‘달리 상납’하는 격.” 뉴데일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6/02/15/2016021500044.html>(검색일: 2024. 7. 30.).
- 정희완. 2024. 7. 9. “중국, 북한 노동자 전원 복귀 요구?...중국 ‘억측과 과장’.”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407091850001>(검색일: 2024. 8. 2.).
- 합지하. 2024. 3. 12. “중국 전역서 북한식당 ‘수십 개’ 확인 ...선양 17개·베이징 7개.” VOA. <https://www.voakorea.com/a/7523379.html>(검색일: 2024. 6. 20.).
- 阿杜谈海外. 2021. 6. 28. “神秘网红: 朝鲜女导游为什么会成为流量代言.” <https://baijiahao.baidu.com/s?id=1703802011793775065&wfr=spider&for=pc>(검색일: 2025. 10. 2.).
- Gertz, Bill. October 15, 2013. “North Korea’s Overseas Restaurants Used for Espionage and Gaining Hard Currency.” *The Washington Free Beacon*. <https://freebeacon.com/national-security/north-koreas-overseas-restaurants-used-for-espionage-and-gaining-hard-currency/>(검색일: 2024. 7. 20.).

Abstract

The Gaze upon the Representation of Representation: Chinese Perceptions of North Korean Restaurants and “North Koreanness”

Lan Jin *Seoul National University*

Despite intensified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s overseas economic activities, including UN sanctions, and the COVID-19 pandemic, North Korean restaurants that began operating in China,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in the 1980s and rapidly expanded to major cities worldwide in the 2000s continue to operate—albeit in reduced numbers—with dozens still functioning in China.

This study analyzes the representational strategies of North Korea, the gaze of Chinese consumers,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m, focusing on North Korean restaurants in China that continue to serve as crucial channels for foreign currency acquisition even during this transitional period. As transnational consumption spaces located outside the North Korean territory, these restaurants serve the dual purpose of regime propaganda and foreign currency generation. However, given their status as consumption spaces, they face the inevitable challenge of considering not only the supplier’s (North Korea’s) agenda but also the consumers’ (Chinese patrons’) gaze and tastes.

North Korean restaurants actively employ gendered strategies to project images that counter prevailing perceptions of nuclear weapons and dictatorship. While constructing an image of a friendly and artistic North Korea through female employees’ service and performances, they simultaneously

maintain contradictory rules such as photography prohibitions and bans on political conversation. This “contradictory representation” constitutes an inherent paradox of North Korean restaurants. Female employees are selected as elites from high-ranking cadre families and produce the symbolic capital of “mystique” through performances in which they are identified as artists. This represents a key strategy for continuously securing “curiosity capital” regarding the closed state of North Korea, which forms the profit base of these establishments.

However, risks emerge in the process of “adjusting” representational strategies to accommodate Chinese consumer tastes in order to maintain curiosity capital. The incorporation of localized performance elements—Chinese popular songs, electric guitars, jazz dance—intensifies the gender display while simultaneously jeopardizing the authenticity of “North Koreanness.” Institutionally, the increasing prevalence of Chinese-owned restaurants and difficulties in restricting South Korean patrons pose ongoing challenges to North Korean restaurants’ representational strategies.

Chinese consumers’ perceptions of North Korean restaurants operate within the historical context of PRC-DPRK relations formed since the Cold War era—specifically within a gendered hierarchical structure of China (masculine)-North Korea (feminine). This can be conceptualized as “Gendered Orientalism,” through which Chinese patrons demonstrate ambivalent attitudes of simultaneously recognizing the economic hierarchy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while respecting and mystifying North Korea through these restaurant experiences.

Keywords | North Korean Restaurants, North Koreanness, Representation, Genderization, China-North Korea Relations, Curiosity Capital, Gendered Orientalism

